

조정원 교수 총장 선출

전체교수 91.1% 찬성으로 선임 신임 부총장에 김수곤(서울)·박규홍(수원)교수

97학년도 우리학교 신입총장에 조정원 전 부총장이 선출되었다.

지난달 12일 있었던 전체교수회의에서 결정된 이번 선출은 우리학교 재단에서 추천한 총장후보에 대한 총장 신임 투표를 거쳐 이루어졌다.

전체교수회의에 참가한 전체교수 91.1%의 찬성표를 얻어 선출된 조정원 총장은 지난달 24일부터 우리학교 총장직에 임하게 되었다.

선출방식에 있어 대학발전위원회 내부의 마찰로 논란을 빚었던 이번 선출은 기존의 총장 선출 방식대로 재단 추천 후 교수협의회의 신임투표 방식으로 치뤄지게 되었으나 지난 16일 조총장 후보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총학생회측과 노동조합측과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교육관, 대학운영방식 등에 대한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는 등 민주적 선출형태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전에 선출된 신임 총장에 대한 이·취임식은 오는 1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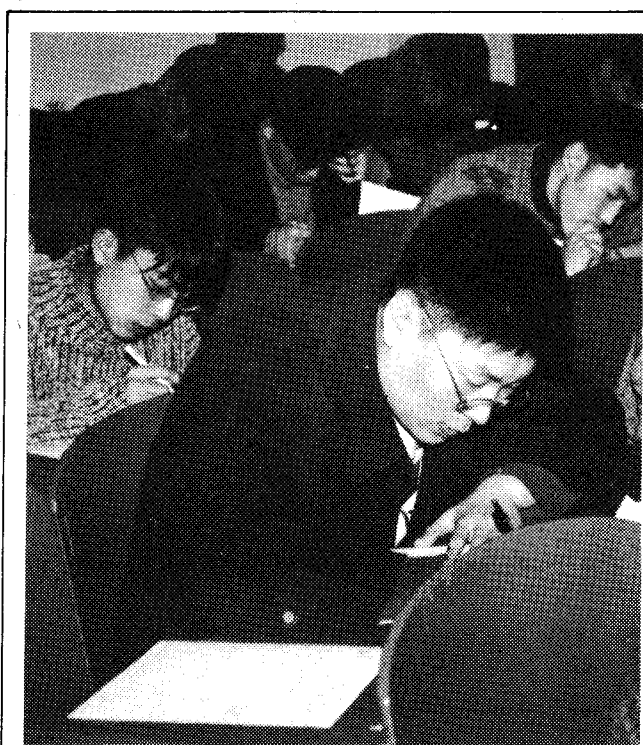
오후 2시 서울캠퍼스 체육관에서 있을 예정이다.

이와함께 지난 24일 각 캠퍼스 부총장 및 보직교수도 새롭게 선임되었다. 신임총장의 선임 형식으로 이루어진 이번 선임에서 결정된 보직교수는 총 13명이며 명단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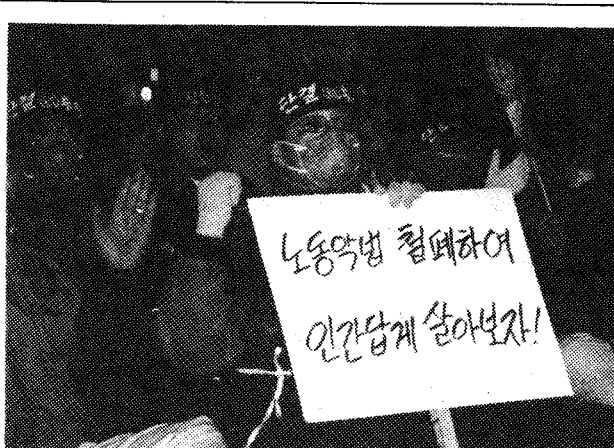
△서울캠퍼스 부총장: 김수곤(정경대 경영) 교수 △수원캠퍼스 부총장: 박규홍(사회대 회계) 교수 △서울캠퍼스 기획관리실장: 김병목(법학) 교수

△교육대학원장: 고정식(국문) 교수 △행정대학원장: 신정현(경외) 교수 △문리과대학장: 박병수(문리대 영문) 교수 △정경대학장: 전동훈(경제) 교수 △사범대학장: 홍성면(영교) 교수 △가정대학장: 박현서(식영) 교수 △사회과학대학장: 유도진(사회) 교수 △자연과학대학장: 차영일(환경) 교수 △공과대학장: 송영재(전산) 교수 △서울캠퍼스 연구처장: 김병진(행정) 교수

<강남이 기자>



“그 순간을 향해” 신임생 정시모집 논술고사와 인성검사가 지난 27일 각 단대 강의실에서 실시됐다. <최진원 기자>



▲27일 규탄대회에서 한 노동자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장면

파업, 전국으로 확산

‘노동법 안기부법 통과에 대한 규탄대회’가 지난 27일 오후 3시 여의도 광장에서 열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권영길)에 속한 수도권지역 노동자 2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규탄대회에서 노동자들은 ‘민주노총 열반하자. 김영삼정권 박살내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지난 26일 새벽 노동법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에 부당성을 주장했다.

같은날 오후 6시에 열린 명동2차 집회는 학생들의 연대집회로 진행되었으며, 집회 도중 가두시위를 시도하였으나 경찰들의 저지로 무산되었다.

한편 이번 집회에서 학생대표로 나선 최한울(광운대 총학생회장)군은 “학교에서 교수들이 가르쳐 주지 않은 것들을 이곳에서 노조원에게

배우고 있다”고 밝혔으며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소수의 문제가 아닌 대다수 시민들의 문제”라며 “정부의 엄단이 두려웠다며 총파업은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끝까지 투쟁한다”라고 말해 굳은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노총 파업결의의 일환으로 경희의료원 노조위원장에서도 지난 27일 오전 7시를 기해 개원 이래 최초의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28일에는 약 3백여명의 조합원들이 본관 현관로비에 집결해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타대학 병원은 달리 기사(방사선과 촬영기사등)중심이 아닌 간호사들 위주의 파업이 이루어져 병원 업무에 큰 차질은 없었다. <최현일 기자>

한의대 5백여명 사실상 휴학

12월11일 재투표에서 53.1%로 결정

한약분쟁과 관련 지난해 5월부터 수업거부에 들어갔던 우리학교 한의대는 지난달 11일, 작년 9월 변경된 학칙-3회 유급시 제적-에 따른 최종등록시한인 지난달 16일을 앞두고

수업복귀와 휴학여부에 대한 총투표를 실시, 97학년도 집단휴학을 결정했다.

이번 한의대 집단 휴학을 위한 투표는 원래 지난달 10일 실시하였으나 이날 무효표와

기권표가 다량 발생해 의결하지 못하고 11일 재투표를 실시했다. 이번 투표는 예과1학년에서 본과 3학년까지의 재적인원 5백92명중 4백22명이 참가, 71.3%의 투표율을 보였고 이중 집단휴학에 찬성한 학생은 53.1%인 2백24명, 수업복귀에 찬성한 학생은 45.3%인 1백91명으로 30표 차이로 휴학이 결정되었고, 별도의 투표를 실시했던 본과 4학년들도 이 결정에 동의함으로써 휴학계를 낼 수 있는 인원 6백25명중 5백명이 넘는 숫자가 휴학계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휴학계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므로 일단 휴학계를 접수받긴 했지만 이번 휴학을 학생들의 집단적인 의사결정장식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말하며 집단휴학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서울 김종욱군 징역 2년 선고

수원 오는 16일 김전수군 3차 공판

연대사태와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던 서울 동부지방법원(동부지법)의 1심판결(징역 2년)을 최종확인으로 확정된 김전수군(24)은 오는 16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경전철 ‘2차사업 검토대상’ ‘대책위’로 유치활동 지속

수원캠퍼스 용인시 경량전철 유치가 ‘2차 검토대상’에 속해 학교차원의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 기획실에서 건의한 ‘용인 경량전철의 경제대안’에 대해 용인시와 교통개발연구원 등은 ‘경전대안’을 현재 계획중인 각종 도시철도 계획의 추이에 따라 신중히 검토한 후 2차사업에 포함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우리학교는 철도건설유치를 위한 대책본부위원회를 결성하여 용인시와 수원시, 경기도를 대상으로 학교발전을 위한 필수적 기반요소가 될 철도건설유치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방중 식당운영 변경

수원 학생회와 식당 공사

우리학교는 동계방학기간 동안 식당운영을 변경·실시한다.

서울캠퍼스 복지회관 3층 학생식당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식사를 제공하고 2층 학생식당은 운영하지 않는다.

또한 교직원식당의 평일 운영은 학기중과 마찬가지로 정상운영하며 토요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2시까지 변경 운영한다.

한편 수원캠퍼스 학생회관 식당은 오늘부터 25일까지 내부화장 및 보수공사를 실시하며 공사 완료 후 2월 3일부터 운영을 재개한다.

수원캠퍼스는 공과대학식당(오전 8시 20분~오후 6시 30분)과 체과대학식당(오전 8시~오후 6시30분)을 정상 운영해 해 이에 대처할 예정이다.

동계방학중 학사일정

내 용	일 자	비 고
성적 입력 기간	96.12.11(수)~28(토)	학적과, 단과대학
가정통신용 성적표 출력	97.1.6(월)~7(화)	전산소
보관용 열람용 성적대장 출력(정정전)	97.1.7(화)	"
교수 확인용 성적표출력 및 배부	97.1.7(화)~8(수)	학적과, 단과대학, 전산소
성적 열람 기간 (학생 각 개인)	97.1.8(수)~24(금)	단과대학 교수실 및 학과사무실
성적표 발송	97.1.13(월)	총무과, 학적과
96. 2학기 성적증명 발급	97.1.14(화)	제철학과 및 정정성적 미표기
성적정정 신청서 접수 마감	97.1.24(금)	단과대학 교수실, 학적과
성적경고 대상자 결정	97.1.30(목)	학적과
97.1학기 등록고지서 출력	97.1.27(월)	전산소
97.1학기 등록고지서 발송	97.1.30(금)	총무과, 학적과
제철학과 성적입력	97.1.30(금)	학적과
96학년도 전기졸업사정	97.2.3(월)~7(금)	단과대학, 학적과
최종 성적대장 출력	97.2.3(월)	전산소
최종 성적증명 발급	97.2.10(월)	전산소, 학적과(제철학과, 정정성적포함)
97.1학기 등록기간	97.2.12(수)~25(화)	학적과, 경리과
97.1학기 휴·복학원 접수	97.2.17(일)부터	학적과
96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	97.2.24(월)	단과대학, 학적과, 사무처

김형찬군 고통속에서 ‘투병’

〈속보〉 지난 5일 경찰의 불법연행과 폭행에 항의하며 분신자살을 기도한 김형찬(유전 90·제적)군이 대치동 순화병원에서 고통속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오한과 고열을 반복하는 상태인 김군은 현재 본격적인 치료는 불가능한 상태이며 몸안의 화기를 낮추는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중이다.

이에 대해 병원 한 관계자는 “김군의 체온이 내려가고 8시간의 치료를 마지면 완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학교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전국연합차원에서 구성된 ‘김형찬 불법연행, 폭력수사 안기부장 사퇴와 안기부법 개악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농성단을 구성, 신문공고와 신한국당 항의방문, 안기부 항의방문 등을 벌이고 있고 정부와 안기부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내진 상태이다.

또한 비대위는 야식판매와 굴판매 등 병원비 마련을 위한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오는 18일 ‘김형찬군 후원의 밤’을 준비하고 있다.

방중 스물버스 운행 변경

수원캠퍼스 스물버스 운행이 동계방학기간(1월 3일부터 2월 23일까지)동안 변경되어 실시된다.

강남과 수원, 분당구간은 등교시 각 승차장 출발기준으로 오전 8시 10분을 첫차로 9시부터 매 한시간마다 운행하고 하교시에는 학교 출발기준으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한시간마다 운행한다.

또한 신갈구간은 특별히 왕복하는 차량없이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5시까지 분당구간 차량이 경유하게 되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스물버스 운행이 없다.

대학종합신문지 한국대학신문

“96 고객만족의 해”

“正論追求”

지구촌 곳곳에는 국가별로 대학종합신문을 대표하는 정론지가 있습니다.

지난 88년 10월, 언론 자율화 조치이후 한국대학신문은 대학 전문매체의 불모지였던 국내에 대학종합신문지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正論의 깃발을 내건지 어언 8년.....
응버는 지성의 보루로 한국대학신문은
정론추구의社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대학신문
TEL 278-1105, FAX 263-2588

정기구독 회원으로 모십니다.
신청방법 구독료: 1년=2만원, 2년=3만6천원, 3년=5만원.
예금주: (주)한국대학신문사 (계입은행: 101-20-133611)
(국민은행: 005-01-0425-705)
특 전: 구독사은품 증정, 본사행사시 우선참여
본사발행 각종 해자제공
전국대학관련 정보 송달과 제공 등
문의: 02-277-1100